

# 티몬·위메프 사태에...휴가철 광주·전남도 피해 속출

### 생산 문제로 파문...대금 이미 지불했는데 카드 취소·환불 안돼 '분통' 여행 꿈꾼 소비자들 한숨만 폭폭...“큐텐 사이트 이용 말라” 글 공유도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거주하는 A씨는 올여름 휴가를 위해 지난 4월 티몬을 통해 4박 5일 일정의 광여행 패키지를 400여만원을 주고 결제했다. 출발 2일 전인 지난 23일 A씨는 여행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았다. 여행사는 “티몬에서 정산을 못받았으니 결제한 금액을 우리(여행사)에게 입금해달라”고 한 것이다.

비행기 탑승권 발권까지 마친 A씨는 티몬에서는 환불요청 승인을 해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금 안해주면 여행 진행을 못한다는 소식에 여행사에게

400여만원을 다시 입금해야 할지 맘을 졸이고 있다.

티몬, 위메프 정상금 지연으로 A씨와 같은 광주·전남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휴가철을 앞두고 여름휴가 숙박·여행을 티몬과 위메프로 예약한 지역민들이 실제 상품 판매업체(셀러)에게 이증지불 요구나 예약 취소 통보를 받고 있다.

셀러들은 티몬, 위메프에서 정산금을 받지 못해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매키페에도 ‘환불 정보 요청 문자가 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셀러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 여행상품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당장 휴가를 앞두고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티몬을 이용해 숙소를 예약한 한 지역민은 “호텔에서도 처음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예약이 안 될 수도 있어 확답이 어렵다며 입장을 바꿔줬다”면서 “여름 휴가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이렇자 직접 환불에 나선 소비자들도 있다.

남구 주월동에 사는 B씨도 부산으로 여름휴가를 떠나기 위해 30만원 상당의 숙소를 티몬을 통해 예약했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티몬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티몬에서 결제하면 위험하다”는 소식을 접한 B씨가 티몬과 셀러에게 환불을 요청하려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B씨는 “급하게 온라인으로 예약을 취소했지 카드 취소도 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불 절차도 마련되지 않아 여름휴가를 앞두고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매한 프랜차이즈 커피 기프트카드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10%대의 높은 할인율로 티몬이 발행했던

충전성 적립금 티몬캐시도 충전과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고불가에 환권이 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기프트카드를 구매했다가 사용도, 환불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여행업은 위험성이 커 사실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편리하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어 인기가 많았다”며 “여름휴가 시즌인만큼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소셜커머스에서의 구매는 되도록 자제하고 여행사를 통해 직접 결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박홍률 목포시장, 직위 상실 위기?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받았지만 부인은 징역형 선고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배우자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 A씨와 공범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B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1월께 김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에게 김 전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A씨 측은 B씨측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 측은 이를 녹화해 김 전

시장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와 공범들의 수백 차례 전화통화 내역과 장거리 동행 내역 등을 고려하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재판부는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인용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박 시장의 발언은 의견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배우자가 징역형을 받아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25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금지하도상가에 냉·난방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문이 설치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숙박업소 업주 살해 60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 우발적 아닌 금품 훔칠 의도 범행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금품을 훔칠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5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A씨의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하고 A씨를 구속했다.

당초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6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을 쇠지렛대로 부수고 침입했다가 B씨와 마주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도살인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다.

A씨는 범행 이후 객실을 돌아다니며 생필품 등을 훔쳐 달아났으며,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 1대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시인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입·출구에 중문 설치하는 까닭은

### “폭염 속 에어컨 냉기 빠져나간다” 잇단 민원에 에너지 효율 높이기 일부 상인 반대로 8곳 만 설치

광주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하도상가 입·출구에 중문이 설치된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일부터 광주 지하도상가에 냉·난방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문을 설치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하도상가 입·출구가 개방돼 에어컨 냉기가 밖

으로 빠져나가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문이 설치되는 곳은 광주시 동구 충금지하도상가 금남공원 일대 4곳이다.

지난해 1월엔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 문화전당 인근 4곳에 중문설치가 완료된데 이어 지하상가 계단과 연결된 통로 25곳 중 8곳에 중문이 설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하상가 상인들이 중문 설치를 반대해 전체 통로에 중문이 설치되지는 않는다.

광주 지하도상가는 충금지하도상가와 금남지하

도상가 1공구·2공구 총 3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금남지하도상가 1공구는 중문 설치 반대 의견이 높다고 한다.

최윤자 금남지하도상가 1공구 상인회장은 “중문을 설치하게 되면 환풍이 힘들게 된다”며 “지하상가엔 옷과 신발을 파는 가게가 대부분이라 환풍이 되지 않으면 먼지가 심하게 일고 끈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우선 중문 설치에 동의하는 상가를 중심으로 중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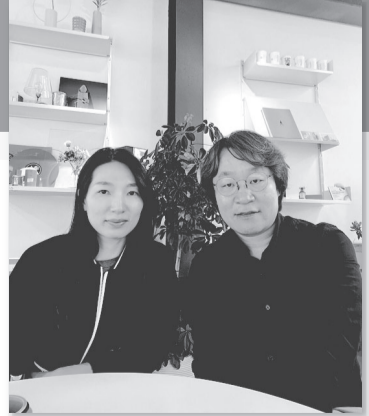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